

전남도민 체육축전... 무안이 뜨겁다

전남체전 10~13일 무안서 개최 22개 시·군 6600명 참가 자매·형제·부부 등 이색 선수들 68가족... '화합의 한마당'



200만 전남도민의 체육 축전인 전남도체육대회(이하 전남체전)가 오는 10일부터 13일

까지 나흘간 무안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53회째를 맞는 전남체전은 '동력의 축행복 무안, 웅비하는 녹색 전남'을 주제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6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다. 흥미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 종합채점 방식에 의한 시·군 대항전으로 펼쳐진다.

올해 대회는 작년보다 2개 종목이 늘어 22개 종목이다. 저변 확대를 위해 농구(5인제)가 시범종목으로, 당구는 전시종목으로 지정·운영된다. 또 육상은 동호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라톤 제한시간을 확대했다. 남자의 경우 40분59초에서 50분으로, 여자는 50분59초에서 60분으로 늘

어났다. 탁구는 여자 개인전을 신설, 남녀 경기를 구분했다. 이번 대회는 당초 4월29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정부의 문화·체육·예술행사 재개 공문을 받고 10일부터 나흘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이벤트성 행사는 대폭 축소했다. 10일 오후 5시 무안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은 차기대회 개최지인 진도를 선두로 원거리 지역 순으로 입장한다.

자매·형제·부녀·부부 등 이색선수들도 준비했다. 가족 선수가 지난해 44가족에서 68가족으로 늘었다. 세 가족 선수는 함평 불령의 한경추와 동생 한현추, 아들 김병규가 있다. 나동길(53·전 국가대표 복싱 감독) 전남복싱연맹 전무이사는 경기운영을 총괄하고, 부인 조현심(54·전남도청)은 나주 정구 대표로,

아들 규호(24·한국가스공사)는 영광 태권도 대표로 나선다. 김초희·김민희(곡성 태권도), 오희지·오윤지(영암 수영), 임영균·임영민(순천 육상), 박권재·박근정(광양 육상)은 형제·자매 등 동기간이고, 오은정·박남준(곡성 배드민턴)은 부녀 선수로 출전한다. 장영현·이남숙(순천 수영), 이의중·임미향(완도 불령) 등 9쌍은 부부애를 과시한다. 조민수(43·광양 테니스)는 지난 1991년부터 21년 연속 한해도 거르지 않고 출전한 '장수 단골 손님'이다. 백희(15·여수 육상)는 최연소 선수, 조정열(74·화순 궁도)

은 최고령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박준영 전남체육회장(전남도지사)은 대회사에서 "도민 모두를 하나로 모아 전남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 미래를 다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목포·광양 등 5개 시군이 윤번제로 열린 전남체전이 2011년부터 나주·구례·장흥을 돌아 올해 무안에서 개최된다"며 "이는 전남도 스포츠정책의 최대 역점사업인 군(郡)지역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8일 강진서 이마추어 볼링대회
전국 500여 아마추어 볼러들이 6일부터 사흘간 강진에서 기량을 겨룬다.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회장 엄재현)는 6일부터 8일까지 강진읍 AMF볼링장에서 '제6회 청자배 전국 시·군·구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군·구 아마추어 볼링동호회 88개팀, 500여명이 참가한

다. 대회는 3인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치러지며, 합계점수로 최종 우승을 가린다. 이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또 경기가 없는 시간에는 다산초당 등 강진지역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암 최범준 (구립중 3) '리틀 최경주'

전국 중·고 골프대회 3위... "PGA 진출하고 싶어요"

영암 소년 골프 최범준(구립중 3년)이 용인대 총장배 전국 골프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최범준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무안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5회 용인대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 중등부 본선에서 5년더파 211타를 기록, 3위에 올랐다. 광주·전남 학생으로는 유일한 상위권이다.

영암의 최범준을 꿈꾸는 최범준은 177cm의 키에 몸무게 75kg으로 중학생답지 않은 좋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목표 영하중에서 고학년인 영암 구립중으로 전학하면서 실력도 월등히 향상됐

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대회 3년더파보다 2타를 줄이며 5년더파를 기록했다. 최범준은 이번 대회에 앞서 지난 겨울 국가대표 골프 김봉주 감독, 김병관 코치와 함께 80일간 훈련을 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집 앞 산을 등산하고, 학교 수업에도 충실히 하고 있다.

최범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프로무대에 진출해 골프선수로서 성공해 세한대 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종료 10분전... 3분전..." 흥명보號 실전 보다 독한 훈련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손흥민과 미드필더 김보경이 4일 오전(한국시간) 전지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에서 진행된 미니게임 훈련에서 볼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니게임으로 포백·스리백 등 상황별 시뮬레이션

월드컵 D-8

"경기 종료 10분 남았다" 조용하던 그라운드엔 김태영 코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순간 선수들의 눈빛은 더욱 경계해지면서 패스의 속도도 더 빨라졌다. 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 나흘째 훈련에 나선 선수들은 처음으로 시간대별 상황에 대처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훈련은 그라운드 절반을 사용한 9대9 미니게임 위주였지만 단순한 미니게임이 아니었다. 시간대별 상황에 대처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이었다. 이범영(부산)과 기성용(스완지시티)이 갑자기 증세로 훈련에 빠진 가운데 이청용(볼턴)과 이용(울산)도 미열 때문에 몸만 풀고 미니 게임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조기를 입은 조는 김신욱(울산)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섰다 손흥민(레버쿠젠)-이근호(상주) 조합이 좌우 날개, 박종우(광주)가 중앙 미드필더를 맡았다.

포백(4-back)은 윤석영(원스파크 레인저스)-김영권(광저우 헝타)-곽태휘(알 힐랄)-김정수(가시와 레이솔)가 맡았다. 사실상 포백이 이 팀의 핵심이었다. 반대쪽 조는 박주영(아스널)-지동원(도르트문트)-김보경(카디프시티)-구자철(마인츠)이 공격에 나선 가운데 하대성(베이징 궈안)이 미드필더를 맡고, 박주호(마인츠)-한국영(가시와 레이솔)-황석호(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스리백을 구성했다. 코칭스태프는 경기 종료 10분전, 3분전 등 다양한 경기 상황을 선수들에게 던져주면서 대응 방법을 주문했다. 특정 상황이 주어지면서 선수들의 미니게임도 격렬해졌다. 김영권은 동료와 충돌해 한동안 무릎을 잡고 쓰러져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됐다. 그동안 수비 조직력 강화, 공격 루트 다양화, 세트 피스 공격과 수비 등 마이애미 전지훈련에서 단계별 훈련을 펼쳐 온 코칭스태프는 상황별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치르면서 팀의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방석' 월드컵

한국 98억원 보장 받아... 8강 진출시 143억원

'돈방석 월드컵' 흥명보호가 보장받은 수입만 98억 원이다. '지구촌 축구 잔치'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만 여기에 좋은 활약까지 펼친다면 '뎀'까지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 월드컵 출전은 선수뿐만 아니라 각국 축구협회에도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월드컵 본선 진출만으로도 대한축구협회가 확보한 기본 수입만 950만 달러(약 98억원)에 달한다. FIFA는 월드컵 본선 진출 32개국에 똑같이 150만 달러의 준비금을 나눠준다. 여기에 월드컵 성적에 따라 조별리그 탈락 팀에는 800만 달러의 상금을 준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는 기본적으로 950만 달러의 수입을 예약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돈과 별도로 '플러스알파'도

숨어 있다. FIFA는 각국 선수단(임원·선수 포함 50명 기준)에 국제선 항공료를 따로 지급한다. 각 나라에서 브라질까지 이동하는 국제선 항공료로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제공된다. 이에 대해 축구협 관계자는 "1인당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귀띔했다. FIFA로부터 받는 항공료만 5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준비금과 상금 등 기본 수입 이외에 항공료, 체재비 등을 합쳐 약 110억원의 돈을 FIFA로부터 받는다. 흥명보호가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100만 달러의 상금이 추가로 들어온다. 16강에서 탈락한 국가의 상금은 900만 달러로 조별리그 탈락팀보다 100만 달러를 더 받는다. 8강 진출에 성공하면 상금은 1400만 달러(약 143억원)로 훌쩍 뛰어오른다. 이러한 한국은 조별리그 탈락 때 얻는 수입보다 600만 달러(약 61억 4000만원)의 수입을 더 챙길 수 있다. /연합뉴스